

고호석(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1) 1차 구술

1. 구술자: 고호석
2. 면담자: 박보영
3. 촬영자: 권용협
4. 구술일자: 2012년 2월 3일
5. 구술장소: 부산 연제구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
6. 구술분량: 04분 55초 / 일부 공개
7. 주요내용: 1984년 공해문제연구소 창립 당일 강제연행

구술자 : 노무현 변호사라는 분은 철저히, 딱 자유민주주의자거든요. 자기는.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자이지. 다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포용력을 가지는.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우리는 자기보다 훨씬 왼쪽에 좀 있다는 걸 머리 속으로 느끼고 알면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같이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고 충분히 같이 놀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셨고. 팔십사(84)년도에도 공해문제연구소에서 공해와 관련한 강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도 부산 시내에서 와이엠씨에이(YMCA) 강당을 빌려서 하는 행사인데 고 강당에 우리가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. 그때는 플랜카드도 거창하게 걸지 않고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, 말아가지고 가는데 경찰들이 막 도처에 깔려있었고. 그래서 우리는 골목, 골목 막 피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와이엠씨에이(YMCA) 딱 접근도 못해보고 고 한 몇 십 미터 전방에서 잡혀갔거든요. 나하고 최병철, 양은진 이렇게 몇 명이 잡혀갔어요.

그 뒤에 인제 노무현 변호사님이 우리를 면회를 오셨더라고요. 그래 와가지고 인제 뭐 우리는 고향지르고 ‘도대체 말이 되냐’ 이려고. 변호사님이 우리 신병을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. 그런 과정에서도 인제 변호사님이 보이는 건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의 참, 무법천지 이런 것에 대한 자기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셨고. 그 당시 상황에, 그래가지고 전부다 다 끌고 가고 우리 그 당시에 전부다 다 붙잡혀 가고 고향지르고 이러는데 보통은 인제 이 재야 어른들은 “나라 이놈들아” 이라고 이렇게, 이렇게 끌려가는 게 일반적인 품이잖아요. 근데 우리 같은 경우

1) 2012년 2월 구술 당시 현직

는 뭐 없지. “놔라 이 새끼들아 이거 못 놓나” 이라고 막 하는데 인제 딱 노무현도 딱 우리하고 똑같은 거라, 인제 거의. 젊은 실무자 빵집이²⁾들이 하는 거하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했지.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, 참 훌륭하다.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자기가 탁 놓여져 있는 어느 사회적 지위, 포지션 또 특정 직업이 갖는 그런 어떤 계급성 이런 것들이 다 있던 말이에요. 그 사람들은 딱 사법고시 걸리면 연수원 시절부터 영감, 영감, 영감님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. 우리도 제일로 어색한 게 다 그냥 영감님이라고 부르니까, 그런 사람들을 보고. 그래, 우리는 절대 그래 안 부르잖아요. ‘노 변호사님, 노 변호사님’ 그렇게 불렀는데. 이제 그렇게 그런 대우를 늘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우리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소탈하게 풀어온 것도 그럴지만, 거기서 완전히 한 사람의 투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내보이는 거니까. 그건 우리도 쉽게 상상하지 않았지요. 그래서 그건 우리로 볼 때는 ‘아, 저분이. 우리가 참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다’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지만 인제 그분이 한 걸음 더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됐고. 인제 그게 그 이후의 고문, 성고문 사건³⁾, 박종철 고문치사 이런 것들이 팔십육(86)년, 팔십칠(87)년에 즉 진행될 때 일선에서, 제일 최전방에서 구호 외치면서 같이 싸우는 거리의 투사로 나서는 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.

그건 공부한다고 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. 그분이 갖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기본 진정성 그게 이게 제일 기본일 꺼구요, 인제 우리가 흔히 노무현 변호사님을 추억하면 그가 갖고 있는 진정성, 소탈함, 그 다음 워 배움에 있어서 또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격의 없음, 용기 이런 등등을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아마 뭐 공부?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고. 워 아주 많이 배워서 진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 학자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. 진짜 대단한 공부를 한 친구들 중에도 변절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그건 그분이 타고난 품성, 성품이다 그래 보지요.

■ 구술자 주요이력

2) 감옥에 다녀온 사람을 지칭하는 속어.

3) 1986년 7월 공개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말함.

- 1956. 부산 출생
- 1976.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
- 1980.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, 부산대동고등학교 영어교사로 부임

- 1981. 부림사건으로 구속
- 1983. 형집행정지로 김해교도소에서 출소
- 1984. NCC 부산인권선교협의회 간사
한국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 창립 및 활동 참여
- 1987.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차장
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사무국장 겸 상임집행위원
- 2005.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(2년)
부산교육개혁연대 상임대표, 부산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
민주공원 상임이사, 6·15부산본부 공동대표
- 2009. 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
- 2010. - 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(2012년 현재)
- 2011. -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(2012년 현재)

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일 때 강제 연행된 1981년 부림사건 피해자. 변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.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차장,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사무국장 겸 상임집행위원으로 ‘노변’ 과 부산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지켰다. 2012년 현재 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,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를 맡고 있다.